로컬플러스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

군산소방서(서장 박진선)는 지난 22일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경연과 함께 새롭게 신설된 면지역 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김관영 국회의원, 진희완 군산시의장을 비롯해 시민 700여명이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경연은 군산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지역 자율 소방방호체계 구축을 목표로 소방기술·체력·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경연대회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은 장비착용 릴레이, 소방호스 끌기, 수관연장시리기 등 4종목에서 안간힘을 쏟으며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뽐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복지행정 향상 워크숍 개최

군산시는 견문과 학습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워크숍을 지난 23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체감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지원과 23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경상남도 통영시를 대표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중앙전통시장 및 한려수도의 복지시설 조성공간과 통영시의 복지정책 방향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했다.

특히 2008년 개관한 통영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주민편의시설과 복지네트워크 구축시설, 무료 급식 및 도시락 배달 사업 등 종합사회복지 서비스 운영 상황은 워크숍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어르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익산경찰서(서장 이동민) 중앙지구대(대장 김용대)는 지난 21일 오전 11시경 익산시 남중동소재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를 방문, 어르신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의는 최근 도내에서 70~80대 노인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을 예방 일환으로 어디서나 '홍보를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다.

이날 강의에서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보이스피싱 정의부터 시작하여 사기과정,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예방사례를 중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법과 피해를 막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양원기자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시급

군산시 위탁업체 차량 구조변경 승인 받지 않은채 운행

발판 위에 올라 탄채 이동 사고시 보험 등 혜택 못 받아

도심 곳곳에서 청소차 뒷편 적재함에 환경미화원 한 두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도심 곳곳에서 청소차 뒷편 적지대에 환경미화원 한 두 명이 위태롭게 매달려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위탁업체에서 청소차를 개조 한 것으로, 적재함에 부착된 발판(폭30㎝정도)에 매달려 승·하차를 하면서 수시로 수거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발판에 매달려 이동 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출발하거나 급제동 또는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회전 할 때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떨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발판 위에 올라 차에 매달려 있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발판과 손잡이를 부착한 구조변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 1항에는 차량의 구조와 장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군산시 위탁업체에서 운영중인 차량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군산시는 청소차의 발판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청소차의 작업 특성과 환경미화원의 작업 편의성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청소차량의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여 차량을 제작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설치해 출고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작업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교육 등을 통해서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대한 지키고 있다" 면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구조변경을 검토하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상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 하면 안되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청소차량 발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미뉴엣 컵 떡볶이' 수출길 올라

대만지사를 둔 수출업체 KBT 통해 K마켓 전 매장에서 판매

익산시 통합브랜드 '미뉴엣' 컵 떡볶이가 22일 첫 수출길에 올랐다.

익산시는 기능성 쌀 생산 육성 및 소비 촉진 일환으로 지난 2014년 기능성쌀 선도 클러스터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했다. 사업추진단은 자체 개발한 곡류가공 익산시 통합브랜드 '미뉴엣'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 12월에는 해외수출을 위해 쌀 가공 식품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아침의땅(주)과 수출 전문기업인 KBT(케이비티)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수출을 위해 익산 고품질 쌀로 가공한 컵떡볶이와 떡국 샘플을 대만으로 보내 현지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호응이 더욱 좋은 컵떡볶이를 이번에 첫 수출하게 됐다.

선적물량은 약 1톤이며 컵떡볶이는 대만지사를 둔 수출업체 KBT(대표 이호열)를 통해 대만 K마켓 전 매장에서 판매된다.

KBT에 따르면 타사 제품에 비해 미뉴엣 상품은 우수한 원재료 사용과 외국인 입맛에도 맞는 소스 개발로 맛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연간 약 50톤 이상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회사법인아침의땅(주)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로 지속적인 수출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현재 세계 각국 38개 업체 교포바이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가들이 쌀 과잉생산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출은 익산시 농식품 브랜드 이미지 강화는 물론 지역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속적인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시, 국제관광박람회 최우수마케팅·공연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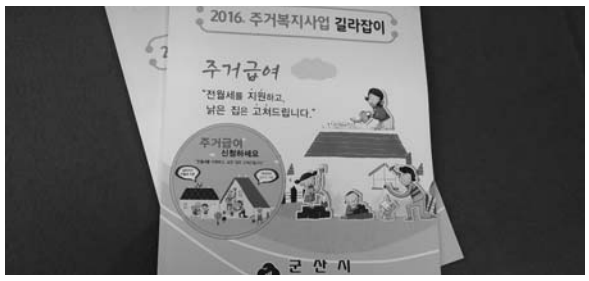
군산시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대구EXCO에서 개최된 '2016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 마케팅상'과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했다. 국제관광박람회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 매년 8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대규모 국제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 군산시는 근대문화도시 군산시간여행축제 홍보관 운영과 군산을 주제로 한 대중가요 공연을 선보였다.

군산시는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관광홍보 전략으로 관광불모지에서 지난해 100만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퀴즈 이벤트와 '그리운 군산항' 노래 공연은 큰 호응을 얻었으며, 박람회 참관객들에게 군산을 반드시 가봐야 할 도시로 인식시킬 만큼 군산홍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기자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군산시 '주거복지 사업 길라잡이' 책자 제작 배부

군산시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의 체계적인 안내와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복지 사업 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부한다.

맞춤형 주거복지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시행하는 종합적인 주거복지지원 체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욕구에 대한 수급자의 생활안정기반 구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주거급여 신청방법,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장기 임대주택사업, 전·월세금융자안내, 빈집 정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농·어촌주택개량지원, 내집연금 등 다양한 주거복지 분야에 대해 수혜자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7월 주택행정과에 주거복지계를 신설하고 주거복지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키 위해 체감형 주거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시민들 다양한 의견 수렴 '시민열린광장' 개최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여 듣기 위해 시민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경 시청 상황실에서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열린광장'이 운영됐다.

정헌율 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마주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시정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또 시정현안과 공동관심사에 대해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의 수장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뛸 것"이라며 "시민의 열정을 지원하고 일상에 힘이 되는 생활밀착형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